지상백고좌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포교가 수행, 수행이 포교…부처님 법 전하자”

12면에 이어

제5대 포교원장 역임하며 포교 매진
법정 · 대행 스님, 이 시대 부루나 존자
“부처님 제자라면 수행, 포교는 기본”



2011년 11월 3일 제5대 포교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혜총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혜총 스님은 필자에게 물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곳곳에 편재(遍在)해 있지 않을까요?”

말을 마친 혜총 스님의 표정은 더없이 여여(如如)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율사였던 자운 스님의 가르침도 이 세상에 두루 편재해 있음을 알기 때문이리라.

혜총 스님은 자운 스님을 모신 복덕으로 성철, 청담, 향곡, 운허, 월하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맥(禪脈)들에게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지관, 월운, 홍법 스님 등 강백의 동량들과도 반연을 맺을 수 있었다.

꼭 알리고 싶던 두 스님과의 인연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혜총 스님이 꼽는 이 시대의 부루나는 법정 스님과 대행 스님이다. 혜총 스님과 법정 스님의 인연은 해인사에서 싹 텄다. 당시 법정 스님이 해인사에서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었다. 글을 쓰느라 여념이 없는 까닭에 법정 스님은 새벽예불이나 대중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대중생활을 하지 않는 법정 스님에 불만을 느낀 혜총 스님이 자운 스님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스님, 대중생활에 수시로 빠지는 법정 스님을 왜 그토록 아끼시는 겁니까?”

그러자 자운 스님이 인자한 말투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정 스님은 조계종단을 위해서 큰일을 할 동량이다. 그러니 너는 법정 스님을 잘 모셔야 한다.”

법정 스님의 방에는 천장까지 인문학 및 사회과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방에 놓인 전축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원고지들을 보고서 혜총 스님은 법정 스님이 할 불사가 다름 아닌 문서포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친해진 두 스님은 함께 화단을 가꾸기도 했다. 대구에 가서 코스모스 씨를 사온 뒤 해우소 주변 잡초가 우거진 곳에 씨앗들을 뿌렸다. 가을이 되자 피어난 코스모스들이 부는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렸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것 같은 코스모스 꽃밭에서 법정 스님은 혜총 스님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산에는 꽃이 피네.” 먼 훗날 법정 스님으로부터 〈산에는 꽃이 피네〉를 받고서 혜총 스님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입니다”라고 말했고, 법정 스님은 “올해도 가을이 되면 해인사에 코스모스가 피어나겠지요”라고 대답했다. 이런 오랜 인연에 보답하기 위해 법정 스님은 혜총 스님이 법문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를 출간했을 때 추천사를 써줬다.

혜총 스님이 대행 스님을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로 꼽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혜총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마음선원에 가서 대행 스님을 친견했다. 혜총 스님이 “대중 포교를 위해서는 불자 예술인 단체와 불자 체육인 단체의 설립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러한 원력을 실현하기에는 종단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 말을 듣고서 선뜻 대행 스님이 3억 원을 쾌척해줬다. 대행 스님이 후원해준 재원으로 태릉선수촌과 펜싱경기장 법당을 개원할 수 있었고, 체육인불자회도 설립할 수 있었다. 당시 체육인불자회 회장을 추대된 사람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전 중앙신도회장)이다. 대행 스님이 후원해 준 덕분에 결과적으로 불자체육인들이 결속할 수 있었고, 중앙신도회도 조직이 확대되고 체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혜총 스님은 포교원장 재임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의 108개 전통사찰이 각기 다른 스포츠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것을 계획했다. 이를테면 월정사는 양궁 템플스테이, 범어사는 태권도 템플스테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와 정부 부처와 체육단체가 합심해서 계획했던 전국 전통사찰의 스포츠 템플스테이는 안타깝게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대행 스님이 스포츠 템플스테이 계획을 듣고서 무척 기뻐하셨어요. 나중에는 이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고요.”

큰일하려면 하심할 줄 알라

평생에 걸쳐 전법포교에 매진한 혜총 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님을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불교를 깊이깊이 들여다보면 수행과 포교, 두 가지 뿐입니다. 이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포교원장 재직 당시 슬로건을 ‘포교가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고 정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포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도 선언에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수행과 포교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불자에게 당부할 말씀”을 부탁하자 혜총 스님은 “큰일을 하려면 하심(下心)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그 실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들었다.

범어사 부주지 재임 시 혜총 스님은 노무현 인권변호사와 만났다. 친분이 생긴 두 사람은 바둑을 즐겼다. 같은 급수였지만 몇 차례 수담(手談)을 나눠보고서 자연스럽게 혜총 스님은 백을, 노무현 변호사는 흑을 잡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패는 동일했다.

혜총 스님이 한 점을 깔고 두자고 제안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노무현 변호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혜총 스님은 “큰일을 하려면 하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던졌다. 이 말을 듣고서 노무현 변호사는 자못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부부는 감로사를 여러 차례 찾았다. 마지막 방문 때 혜총 스님은 부부에게 광명진언을 독송해준 뒤 “청와대에 가거든 부처님을 잘 모시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대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라고 밝혔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유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혜총 스님은 “불자라면 마땅히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자운 스님에 대한 회고와 찬탄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저는 세납과 법랍이 높은 구하 스님이 자운 스님에게 예를 갖춰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어른스님을 대하듯 극진했죠. 제가 구하 스님께 이유를 여쭙자 스님은 ‘자운 스님은 나의 은사스님인 경월(慶月) 도일(道一) 스님이 다시 환생한 분이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혜총 스님은 환생이라는 말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구참(久參)이 되고나서야 혜총 스님은 구하 스님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꽃이 진 자리에 다시 꽃이 피어나듯이 죽음 뒤에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스님의 저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는 책 제목은 자운 스님이 혜총 스님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성이 맑다”는 한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서 혜총 스님은 꽃과 나무를 가꾸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산야에서 묘목들을 캐서 화분에 심어 가꾸는 분재 취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운 스님을 모시고 며칠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분재의 나무들이 모두 말라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혜총 스님이 슬퍼하자 자운 스님이 물었다.

“네가 꽃을 사랑하느냐?”

혜총 스님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혜총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자신이 가지를 치고 뿌리를 자를 때 얼마나 나무는 아팠을지 깨닫게 되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자운 스님이 말을 덧붙였다.

“꽃이 너를 사랑할 때까지 너는 꽃을 사랑하지 말라.”

혜총 스님의 가슴에는 자운 스님을 모셨던 기억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남아 있으리라.

유응오 / 작가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 할인 | 승복, 가방 50% 가구, 병풍 30%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자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원백 20개 80,000원
홈초돈타래 40개 80,000원

파라핀 1BOX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